



바위 많고 氣운 찬 마니산 수많은 생명들의 인연공동체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4) 마니산 정수사

글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이름 나와 놓고 있다. 가재는 물속의 낙엽을 먹고 사는 열새우를 주식으로 한다. 열새우는 1급수 맑은 물에만 살기 때문에 가재 역시 1급수 계곡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특히 수향 부족으로 물고기가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정수사 개울에는 가재가 생태환경의 제1지표종이다.

삼성각 아래에 약수가 청건 초기의 이름이었던 精修寺를 精水寺로 고치게 했

○ 마니산정수사 이호신작(60×88, 1999)

대웅전 꽃향살

정수사 대웅전 건물은 아름다운 꽃향살로 해서 보물로 지정되었다. 꽃을 조각해 끼워 만든 여느 꽃향살과는 달리 커다란 널판에다 꽃병과 꽃을 조각



○ 나뭇가지 모임의 재벌레

다. 묘사해 빗속 남새밭에는 보살이 심어놓았을 왕원추리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왕원추리는 이름 그대로 키가 크고 잎이 넓은 원추리이다.

자벌레 한 마리가 함허대사 부도로 가는 길가 팔배나무 가지에 걸쳐 있다. 자벌레는 본래 흑갈색이지만, 붙어있는 나무

○ 쇠물러온 여름이다 마니산을 찾아오는 손님이다.



요즘 강황에 가면 '마리산'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꽤나 많이 눈에 띈다. 강황에서 마니산에 대한 개명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은 지난 90년대 초. 개명론자들이 따르면 조선 초에는 '마리산=마리산, 마리산'이었는데, 조선 중기에 참선단 부수에 동원된 승려들이 지금의 '마니산'으로 부당하게 바꾸었으니 본래의 이름을 되찾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마니산 이름 바꾸기 문제가 미묘한 뉘앙스를 갖게 된 것은 개명을 주장하는 이들이 거의 개신교측이라는 점이다. 보전과 개명 양측이 몇 년을 밀고 당기며 끝을 보지 못하자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나서 '마니산'은 역사상 있는 지명이며,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식화된 지명으로, 함부로 개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황 길거리에는 '마리산'이라는 지명의 간판들이 수없이 걸려 있다.

'精水寺' 맑은 물 삶으로 증명하는 가재 왕원추리·자벌레·한국특산소나무 서식

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게 한다. 꽃향살은 그대로가 부처님께 올리는 꽃공양이다. 경내에 단풍나무 오동나무 대추나무 배롱나무 사철나무 주목 영두 능소화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윽'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 보지 않지만, 봄날이면 화려한 꽃을 늘어뜨리는 털 알의 수양벚나무와 여름이면 석벽에 얼굴을 늘어뜨려 자주색 꽃을 피우는 취이 그레도 눈맛을 준다.

껍질의 색깔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자벌레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길쭉하게 뻗어 있어 나뭇가지에 걸쳐 있으면 갑작스럽다. 조선시대 설법 제1인자로 환승대사라는 분이 있었다. 설법을 얼마나 잘 했는지, 하루는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신중이 법회를 찾아갔다. 법당 안을 둘러다보면 신중이 말했다. "큰스님이라 해서 누군가 했더니 영산회상 당시 자벌레였구만!"



○ 정수사 묘사체 뒤쪽에 왕원추리가 피어있다.

치수염 달개비 노루오줌꽃 사위질방 엉겅퀴 등등의 우리 야생화도 청초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숲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숲길 오른쪽으로 개울이 나 있다. 지난 봄에 나온 새끼 가재들이 바위틈에서 나올

선두포, 철새들의 극락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을 올라가면 선두포 넓은 들녘과 함께 마니산이 나타나고 들녘 한 가운데로 꽤 넓은 물길이 지나간다. 마니산은 본래 강화와 떨어진 별개의 섬이었다고 한다. 마니산과 정족산을 이어주는 넓은 들녘은 조선 숙종 때 간척으로 생긴 땅이며, 물길은 그 옛날 배가 지나다니던 바닷길이다. 겨울이면 이 들녘은 철새들의 극락이 된다. 가을이 저물기 바쁘게 기러기, 황오리, 청둥오리 등이 시커멓게 내려앉는다. 접집 주변의 자연생태에서 이곳만큼 겨울철새들이 많이 내려앉는 곳도 드물다.

큰길에서 정수사까지는 10분. 정수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세종 때 함허대사가 중창한 것으로 상량문에 나와 있다.

아스팔트 포장길만 아니라면 정수사 숲길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러 종류의 귀화식물들이 길가에 간간히 보이지만, 하늘 밑 나리 원추리, 이삭여귀 참나리 까

사찰생태에서는 그 절이 앉은 산의 산세를 살펴보는 게 먼저 할 일이다. 바위가 많은 골산인지, 토양이 많은 육산인지, 골짜기는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지, 산의 경사도는 어떠한지, 산기슭은 어떤 형태로 펼쳐져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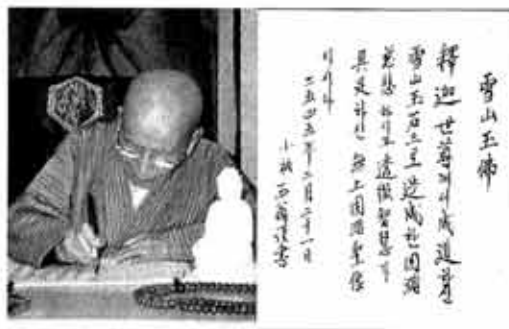
대체로 바위가 많은 암산(鞍山)은 흙으로 덮힌 육산(肉山)보다 기가 강하다고들 한다. 기가 강한 것을 '살(煞)'이라고 하는데, 살은 '친다' '패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화도 마니산도 바위가 많은 골산 가운데 하나이다. 언젠가 풍수하는 아들이 전국의 요지를 다니며 기(氣)가 센 생기처(生氣處)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마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8동 1663-6 새만방당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운 큰 스님 / 추천서

